마을기업 대표 역할 수행 · 조직 강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총회 열고 이창우 초대회장 선출… 역량강화 교육 · 공동체 강화 워크숍 등 추진

전주시마을기업협회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민간조직이 탄생했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추진위원장 이창우)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에는 전주농부협동조합과 학전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곡천향토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등 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정식단체 설립을 위한 정관을 승인하고, 초대회장으로 이창우 전주농부협동조합 대표를 선출했다.

협회는 향후 법적 요건과 지위를 갖춘 민간조직체로서 마을기업들을 아우르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마을기업의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강화 워크숍 ▲회원조직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규 마을기업 발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은 전주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옥마을 향교길 '숲속의 길' 조성

전주시, 가로변 화단 23개소 · 그늘용 교목 40그루 · 야생화 1500본 식재

전주 한옥마을 내 향교길이 화사한 꽃길로 새 단장한다.

전주시는 이달 31일까지 한옥마을 내 은행로와 전주향교를 잇는 향교길 460m 구간을 '숲속의 길' 가로변으로 조성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예스러운 골목길 정취를 전하고 한옥마을만의 전통미를 강화하기 위한 '숲속의 길' 조성에는 총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가로변 화단을 23개소 조성하고, 그늘용 교목 40그루와 야생화 1,500본을 식재한다. 수종으로는 참빗살나무와 계수나무, 화살나무, 만병초, 목단, 작약 등을 심기로 했다.

또한 시는 청사초롱 가로등을 24곳에 설치하고, 석등 및 전통소품을 활용한 쉼터 공간도 조성해 전통미가 가미된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기존 한옥마을 중심부 공예품전시관 노외주차장 부지를 오목대 전통정원으로 구축했다. 또 지난 12월에는 승광재 옆 공간에 골목정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골목길 정비와 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만의 고풍스러운 정체성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4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는 전주향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즈넉한 경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옥마을이 가장 한국적인 관광거점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시공공정원 당선작가 작품발표회

전주시 · 정원문화박람회조직위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신현)는 지난 26일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의 일환으로 노송동 일원에 조성할 도시공공정원의 당선작가 7명과 작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작품발표회에서는 지난 2일 선정된 전문작가 3팀과 시민작가 4팀에 당선증이 교부됐으며, 정원 조성 지원금 협약서도 체결했다.

전문작가에는 대상지 면적과 시공난이도에 따라 3,500만~4,000만원의 조성비가 차등 지급되고, 시민작가에는 1,000만원의 조성비가 지원된다.

또 작가들은 지난달 공모전을 통해 계획했던 정원 작품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조직위원들과 디자인 자문, 기술검토 등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작가들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도시공공정원 조성을 완료한다.

시는 ▲1차 완성도 및 정원 전반 ▲2차 유지관리 부분 전반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1팀)에 500만원, 우수상(전문작가 1팀, 시민작가 1팀)에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등에서 개최된다.

최신현 위원장은 "도시공공정원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공공·일상'에 대한 주제가 잘 반영된 게 특징"이라며 "정원 조성 기간 동안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고, 시설물 조성 시 정원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지역학습자료 '전주탐방' 발간

전주 역사 · 문화 · 생태 · 예술 · 교육 · 체험 등 27가지 이야기 담아

전라감영과 한지, 생태동물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의 모든 것을 담은 지역 학습자료가 발간됐다.

전주시는 초등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바로 알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형 지역학습자료 '전주탐방'을 제작해 초등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주탐방'에는 전주의 역사, 문화, 생태, 예술, 교육, 체험 등 27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 구성된 게 특징이다. 총 분량은 69페이지 정도로, 전주동물원의 대표 동물로 알려진 수달을 활용해 꾸며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객사) ▲전주향교 ▲전주한옥마을 ▲꽃심 ▲한지 ▲전주기접놀이 ▲팔복예술공장 ▲서학동 예술마을 ▲생태동물원 ▲첫마중길 ▲야호아이숲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이어진 '전주탐방' 제작 과정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장학사, 교육활동가 등을 집필자문단으로 참여시켜 학습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전주탐방'을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도서관, 아동센터 등에 배부해 아이들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SOS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100% 이하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은 올 연말까지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한시적 완화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소득기준 변경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90만1,032원 이하였던 것이 487만6,290원 이하로 사업 대상이 많아지게 됐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봉착한 위기 가구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홈페이지(jjw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사람'은 법과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사랑은행(긴급 생활안정자금) ▲사랑나눔 간병 지원(간병부담 경감)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창희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전주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주시민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